다산포럼

진보 정치의 길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가방 속엔 고양이가 없었고, 모자 안엔 토끼가 없었으며, 머릿속에는 뇌(腦)가 없었다."

대공황의 혹독한 여진 속에서 치러진 '세계경제대회'가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을 때, 케인스가 성과 없이 끝난 그 요란한 회의를 비난하며 했던 말이다.

뻔한 흠집 내기는 그렇다 치고, 대권 주자들의 입에서 더 할 수 없이 듣기 좋고 풍요로운 말들이 연일 쏟아진다. 그러나 상투적이고 언뜻 반듯해 보이는 말들은 현장의 실천성과 유리된 채 부유하고, 대안을 위한 말들의 공방은 종종 풍성한 말잔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현실 정치는 가치와 정책을 둘러싼 엄정한 선택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평론가 황현산은 영화 '시'를 감상한 한 칼럼에서 시 작법에 관한 강의가 막상 시 입문자의 시 쓰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맥락을 전하며 "가장 신실한 말이 가장 허망한 말"이 될 수 있다 했거니와, 그의 날선 지적이 오늘 더 각별하다.

촛불과 특검과 헌법재판소는 걷잡을 수 없이 빗나갔던 한국 정치를 간신히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그 '본전치기'조차 얼마나 노심초사의 힘든 여정인지를 뼈저리게 보여 주었다. 각자의 속셈이야 어떠하든, 그 홍역을 치르고도 청산돼야 마땅할 인물들마저 대선 정국을 농락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 정치가 더는 내려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음을 실감한다.

정책이 여론보다 선행하는 게 순서일 터인데, 여론의 바람(돌풍과 뒤집기 따위)이 정당과 후보자의 행태를 규정하는 기이한 전도(顚倒)가 거듭되는 와중에,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버터 한 조각을 터무니없이 큰 빵에 무작정 얇게 펼쳐 바르는 셈이랄까. 언론의 습관적 조명을 받는 대선 주자들은 여론전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실체보다는 소극적이며 잡다한 외연을 넓히는 일에 사력을 다한다.

부동층이나 중범위 유권자의 포섭도 먼저 가치와 기준을 공들여 정립한 이후에 좌우로 정밀하게 움직이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여야 할 것이다. 진영의 내용은 비었는데 진영 논리만 있으니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은 어디에도 없고 사안에 따른 느닷없는 중구난방과 막무가내의 치고받기만 요란하다.

비민주적 선거제도나 거기 맞물린 후진적 정당체제 같은 절박한 제도적 사안은 아예 뒷전인 채, 죄 없는 정부 형태를 두고 한국 정치의 사활이 걸린 양 한바탕 소동을 피우더니 지금은 그마저도 잠잠하다. 정치적 역정과 정책 역량에 대해 변변히 검증할 새도 없이 색깔론 혹은 지역감정을 은근히 선동하거나 비민주적 정당 조직에 간신히 얹혀 마침내 대선 후보를 꿰찼으니 대선 정국의 혼란스러운 이 모저모를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예수께서 우셨다."(Jesus wept.)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가 보인 모습을 표현한 이 두 단어가 전부인 요한복음 11장 35절은, 3만여 개의 절(節)로 이루어졌다는 성경의 가장 짧은, 그리하여 그만큼 강렬한 절이다. 영국 신학자·설교가 존 스토트(John Stott, 1921~2011)는 예수의 울음에는 거대한 가해 세력을 향한 분노와 희생자에 대한 연민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박근혜 정권의 비극은 분노와 연민의 대상을 완전히 뒤바꿨다는 데서 비롯되었는지 모른다.)

인간은 "이해관계의 감옥에 갇힌 수인(囚人)"이라 했다. 인식 능력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스스로 윤리적 삶을 살아 내기가 버거운 존재라는 뜻일 것이다. 인간 공동체가 민주주의란 것을 만들어 피차 견제케 하고 그때그때 타협을 통해 가해와 피해가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나마 경계해 온 것이 천만다행이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경제학자, 1908~2006)가 민주주의를 '상쇄력의 제도화'로 정의했을 때 그는 "자본(이 우위를 점하는 위계적 권력현장인 시장)에 대한 노동의 상쇄력을 시장 안팎에서 정치적으로 제도화하는 체제"를 넌지시 가리킨 것이다. 가령 정치마저 사회경제적 약자를 편들지 못하고 가장 큰 생산자 집단인 노동을 배제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 법석을 치르고도 한국 정치는 기껏 적폐에 편승하거나 도무지 그 차이가 요령부득인 '주요' 대권 후보들 사이의 지루한 각축으로 영일이 없다. 이 혼돈 속에서 선거법, 정당체제, 언론관계법, 노조관련법, 비정규법, 기업법 등 허다한 분야의 한국 민주주의의 '절차'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아슬아슬하다.

진보 정치의 본령은 약자의 목소리가 수렴·표출되는 제도적 장치, 곧 계급 간 권력적 길항의 제도화를 마련하는 데 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안팎에서 소외된 노동이 늘어나는 작금의 상황은 진보 정치의 회생을 위한 호기여야 한다. 당장의 곤궁을 면하기 위해 실용적·공학적 접근에 매일 때, 진보 정당은 항구적으로 선거에 취약한 과잉의(redundant) 정당으로 남기 쉽다. 그 도정은 험난할지언정, 진보가 가야 할 길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닐 것이다.

청춘 톡·톡

몸의 기억, 그리고 새로운 물결

송 재 영
작가·필명 '타라재이'

기억보관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기 다른 인생을 살며, 자기만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낯설지만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비슷한 성격은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기 때문이다.

작업 방식은 인터뷰와 비슷한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정해진 질문이 없고, 간단한 메모 외에 녹취를 하지 않으며, 최대한 몰입한다는 점이다. 기억에 대한 기록보다는 체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전히 내 안에 있는 기억에 의존해 글을 쓰기 시작한다. 1차로 완성된 글을 의뢰인에게 보내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최종 완성한다. 이후,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보관한다.

가끔 이 일로 먹고 살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 기억보관료는 평범한 한 끼 식사나 커피 한 잔 정도이다.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평소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한다.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아픈 할머니를 위해 정형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도 있고, 어릴 적부터 빨간 소방차를 좋아해서 구급대원이 꿈이라는 아이도 있다.

그런데 열에 아홉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말하기 귀찮다는 뜻일 게다. 내가 어릴 적, 친구들은 선생님, 과학자, 대통령,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이었고, 당연하던 시절이다. 지금은 선호 직종이 완전히 바뀐데다 직업을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사실, 현재의 직업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이 대부분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당연해 질 것이고 재난이나 긴급상황에는 사람 대신 특수로봇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능 1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일류 대학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물론, 내가 생업으로 하고 있는 입시강사란 직업도 곧 사라질 것이다. 딥러닝으로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노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이쯤 되면 10년 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한다.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그 흐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파도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과 리듬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몸을 약간 낮춰 무게 중심을 유지하고 시선을 정면에 두어 다가오는 물의 리듬을 읽는 것이다. 시대의 물결에 몸을 싣고 파도타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가오는 물살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뚱맞게 몸이라니!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달라져도 몸은 여전히 몸이었다.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해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인간이기 위해 애써 왔다. 몸은 실존이며 실체이기 때문이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의 이마, 어머니의 코, 3년간 교정으로 달라진 치아가 보였다. 눈이 반달모양이 되도록 활짝 웃는 얼굴을 좋아하던 옛 연인이 떠올랐다. 시선이 손으로 향했다. 일 때문에 손톱을 바짝 깎는 습관이 보였고, 인생의 강줄기라 불리는 손금이 펼쳐졌다. 문득 나는 손금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몸 곳곳에는 과거의 흔적이 있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한 사람들, 그 억겁의 찰라, 이야기가 몸에 담겨있음을 깨달았다.

몸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기억보관소,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콘텐츠였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 관계 같은 것 말이다. 우리는 거대한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규모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지만, 산업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 다만, 변화에 앞서 본질적인 흐름은 늘 존재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인간다움에 대한 시대적 해석이 있었다. 다시 몸으로 돌아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이다. 개인을 넘어 가족과 사회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살고 싶은 미래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10년 후, 내 생업은 바뀌어있을 것이다. 기억보관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지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을 체험하고 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나를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다운 감동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조금 더 여유있고 능숙한 '메모리 키퍼'(Memory Keeper)가 되어있길 소망한다.

기 고

봄에는 옷장을 뒤져라

박 혜 영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사

봄이 오면 겨우내 입었던 두껍고 칙칙한 옷을 벗어버리고 산뜻한 옷을 입고 싶어진다. 그런데 항상 계절이 바뀌면 왜 내 옷장엔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걸까?

봄기운이 완연해지자 갓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이 주말이면 멋을 내고 멋스런 옷들을 입고 외출한다. 딸의 옷장을 살펴보았더니 용돈은 모두 옷을 사는데 사용했는지 옷장 안에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새옷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아직 꺼내보지도 않은 옷이 담긴 쇼핑백, 그리고 더 이상 딸아이가 입지 않는 옷들이 함께 쌓여 있었다. 가만히 보니 버리려는 옷들은 모두 한두 번 정도 입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 옷에는 벌써 보푸라기가 일어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옷감의 질이 형편없었다.

최근 유행이 너무도 빨리 바뀌는 탓에 일명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급속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저렴한 가격에 한 시즌 입고 버리는 브랜드도 늘어 옷을 구입하는 것만큼 버리는 속도 역시 가속이 붙은 듯하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옷을 간직하지 않고 마치 일회용품처럼 입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패스트 패션 시장 규모는 2008년에 비해 일곱 배 가까이 성장했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의류 폐기물 양도 약 32% 늘면서 한 해 동안 약 7만2000t에 해당하는 의류가 폐기되고 있다고 한다.

폴리에스터라는 합성섬유가 없었다면 패스트 패션의 폭발적인 성장은 불가능했다.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합성섬유는 자연에서 그대로 얻어내는 천연섬유와 달리 석유나 석탄과 같은 물질에서 얻어낸 플라스틱 섬유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섬유에 60%가량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터(합성섬유)는 제조과정에서 화석연료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천연섬유와 비교하여 세 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고 한다.

패션산업은 섬유가 옷이 되는 과정까지 탈색, 염색, 프린팅 등 여러 화학처리를 거치므로 전형적인 물 집약적인 산업이다. 티셔츠 한 벌 만들 때 사용되는 물의 양은 2700ℓ에 달한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당신은 1만9000여 ℓ의 물을 폐수로 방류한 셈이다.

화학처리를 거친 하나의 의류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화학물질이 침출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이 의류폐기물이 자연분해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소각장에서 태울 경우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뿐 아니라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미세섬유'라 부르는 매우 작은 섬유 가닥이 방출되는데 현미경으로 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우리가 세탁기를 한 번 돌릴 때마다 수십만 개에 해당하는 미세섬유가 하수구를 거쳐 바다에 도달해 수백 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물고기나 다른 바다생물이 삼키고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드디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된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플라스틱 오염 중 약 30%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것이고 그 중 약 35%는 합성섬유 제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쉽게 구입하고 버린 옷들이 대기, 수질, 토양 나아가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어두운 이면을 우리는 그동안 애써 모르쇠로 일관해 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입는 옷에 대해 유행만을 좇던 소비에서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소비를 해야 한다. 식재료를 고르는 것과 화장품을 선택하는 방법처럼 패션에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옷을 살 때는 내구성이 있어 오래 입을 수 있는 재질을 골라 가능한 최대한 입고 다시 사용하고 고쳐 입어 보자. 내게 필요 없어진 옷은 중고품 점에 기부하자. 패션이 더 이상 쓰고 버리는 단순 소모품이 아닌 방향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한다면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도 바람직한 생산방식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한참 멋을 내고 옷을 사는데 재미가 붙은 자녀들에게도 옷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긴 여행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해주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옷장 안을 잘 뒤져보길 바란다. 분명히 그동안 '팽' 당했던 멋진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

社 說

대선 후보들 '공시생' 느는 현실 직시해야

'공시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시생이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2011년 18만5000명을 기록했던 공시생은 지난해 25만 7000명으로 38.9%나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너도나도 뛰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지만 학벌과 스펙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데다 정년 보장과 공무원 연금이라는 노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때문에 10대는 물론 50대까지도 공직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데 따른 국가적 손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시생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순손실을 연간 17조1429억 원으로 추산했다. 물론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학원비·교재비 등의 경제적 순기능이 있겠지만 역기능과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적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직종에서 인재들이 고루 분포돼 각 분야를 발전시켜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너도나도 공무원이 되겠다고 몇 년씩 고시촌에 틀어박혀 '공시족', '공시 폐인'이 되고 있다.

공시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 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에 있다. 젊은이들이 공시 열풍에서 벗어나 창업 등 새로운 길을 가도록 도전하는 사회 풍토 조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대선 후보들도 말로만 '일자리 대통령'을 외칠 게 아니라 뚜렷한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 명예회복 우병우 구속에 달려 있다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오늘 이뤄진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이날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검찰은 또 보강 수사를 거쳐 특검 때 넣지 않았던 2개의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추가했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도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해양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바란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구속이야말로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를 종결하는 마침표이자 검찰의 명예회복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無 等 鼓

곡우사리 굴비

"…굴비는 어린아이들의 음식은 아니다. 굴비는 젓가락질 경력이 적어도 10년은 되어 손가락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음식이다."

소설가 김영하는 영화산문집 '굴비 낚시'에서 굴비를 독특하게 정의한다. 굴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먹으려면 능숙한 젓가락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래서인지 음식점에서 먹게 되는 굴비 백반은 머리를 제외한 몸통을 잘게 찢어 내놓아 손님들이 쉽게 집어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작가 공지영이 펴낸 음식 에세이집 '시인의 밥상'을 읽는데, 생소한 것은 '조기젓'이었다. 법성포 태생인 박남준 시인이 작가와 일행을 보리굴비 전문식당으로 데리고간다. 작가는 조기젓 맛에 대해 "평생 처음 먹어보는데 제대로 삭은 것이 입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풍미를 느끼게 했다"고 묘사했다. 조기찜과 구이, 또는 굴비 백반을 먹어 본 독자라면 문득 '조기젓갈은 어떤 맛일까' 군침이 돌 법하다.

참조기는 산란을 위해 4~5월께 법성포 앞 칠산바다를 지난다. 지금과 같은 어군탐지기가 없던 시절, 어부들은 바닷물 속에 대나무통을 집어넣고 귀를 기울였다. 그런 방식으로 조기떼 소리를 듣고 그물을 드리웠다고 한다. 곡우 전후, 사리가 겹치는 때에 잡은 참조기 맛이 가장 좋다고 한다. 이때 잡은 조기는 기름지고 알이 가득 들어 있어 '오사리(우수·경칩·춘분·청명·곡우) 굴비', '알배기 굴비'라고 불린다.

조기 한 두름(20마리)을 빠른 손놀림으로 엮는 모습이나 바닷바람과 햇볕을 받으며 시나브로 건조되는 장면은 영광 법성포만의 진풍경이다. 타 지역에서는 소금물에 담그는 '물간'을 하는 반면 영광에서는 1~2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을 뿌려 '섶간'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7 영광 법성포 곡우사리 굴비축제'가 오는 14~20일 법성면 뉴타운 주민자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민간 주도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여파로 침체된 굴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반찬' 굴비의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